

“서른, 축제를 시작하다”

제30회 부산연극제

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2012.03.29_04.16 월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협찬 BS 부산은행 KYOBO 교보생명 MEGA MART 아얀 햇살 OGS 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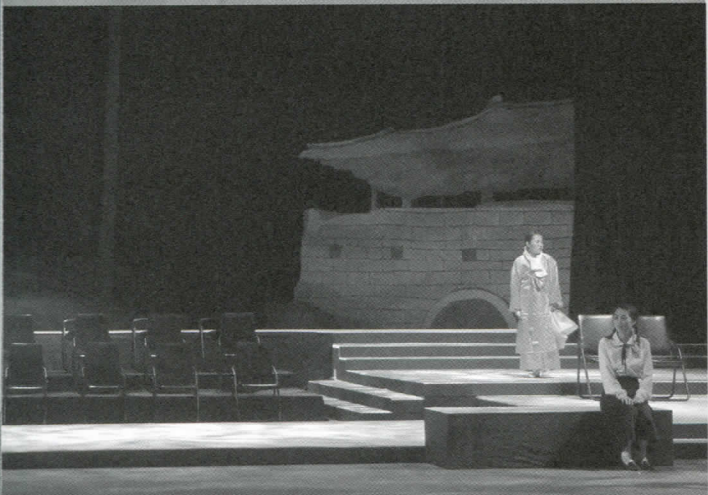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사)한국연극협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일보사 K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대표방송 KNN BC 부산평화방송 부산 CBS BBS 부산불교방송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작 최은영 연출 이선주



4. 8(일) 17:00, 9(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서른, 축제를 시작하다”

제30회 부산연극제

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연출의도

조선시대 역사는 남자들만의 역사라 할 정도로 여성들을 배제한 역사이다. 그래서 기존 조선시대 사극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궁중에서 암투나 벌이는 미혹한 존재들이거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던 수동적인 존재들이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들은 제 인생을 사랑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여성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삶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녀들의 선택이 진정 옳다고 말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내면을 감추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가 있다면, 외로운 현실에서 그것보다 감사한 건 없으리라.

그녀들은 끝을 향해 달려왔지만, 결코 끝은 아니다. 그녀의 희생과 결정으로 다른 이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녀의 끝 또한 그녀가 진정 원하고 결정했던 삶인 것이다. 시대가 다음에도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들 아니 서로를 보여주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려하는 냉혹하고 외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싶다. 이번 공연은 추리극도 페미니즘 극도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다.

줄거리

인두로 지져 죽인 시체가 발견되었다. 궁의 의생 조이경은 시체를 검시 하나 석연치 않음을 알고 의문을 품는다. 종부 최영진이 자신의 남편과 통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종이었던 개똥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상전이 여종 하나 죽인 것을 깊이 수사할 수 없는 당시의 법대로 사건은 거기에서 무마된다.

사실, 최영진은 자신의 정인인 허석이 그의 죽마고우 이정환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의 열등감을 허석의 연인인 자신과의 결혼으로 채우려는 정환에게 복수를 위해 허석의 아이를 가진 채 시집을 간 것이다.

이정환은 자신의 아이를 뱀 몸종 개똥을 죽이라 영진에게 부탁하고, 이에 영진은 가짜 살인극으로 위장하여 개똥을 죽은 것처럼 만들고, 멀리 도피시켜 보살피는데...

Cast



최영진
안성혜



조이경
황자미



개동
이진희



채부환, 주지
엄태현



이정환
유성곤



허석, 휘
박현민



귀덕
박선희



무이, 유모
유송이



오작사령, 무사, 해인
김남희



현미밴드 Synth
전현미



현미밴드 B.guita
백상호



현미밴드 Drum
김효진



대금
최재호



피리, 태평소
진형준



해금
박미경



가아금
권지현

Staff



작
최은영



연출
이선주



작곡 음악감독
전현미



기획
조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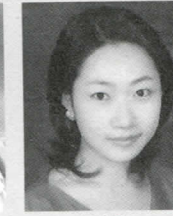
홍보
임흥재



예술감독
박철홍



조명감독
오정국



안무
홍충민



분장
박은주



무대디자인
김재한



의상
김미란



진행
윤성희



웹디자인
최혜림



소품
권은하



대도구
박종근



진행
류미애